

SK이노, 글로벌 데이터센터 에너지솔루션 사업 본격화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인프라기업 BDC와 사업 추진 위한 업무협약

AI 기반 에너지 관리시스템 도입 등 말레이시아 초대형 시설에 제공 “전력 안정성·운영비 절감 입증할 것”

SK이노베이션이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에너지 솔루션 사업에 본격 뛰어든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싱가포르의 데이터센터 인프라 기업인 BDC와 데이터센터 에너지 솔루션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은



(왼쪽부터) SK이노베이션 김무한 에너지솔루션 사업단장, BDC 최고투자책임자 케빈 콰이 지 난 11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데이터센터 에너지 솔루션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말레이시아에 있는 BDC의 초대형 AI 데이터센터에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할 다. 이 데이터센터는 국내 최대 데이터

센터(270MW)보다도 훨씬 큰 규모로 아시아에서도 손꼽히는 초대형 시설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 데이터센터에 구

체적으로 ▲AI 기반 에너지 관리 시스템(DCMS) 도입 ▲에너지저장장치(ES S)와 연료전지 등 보조전원 설계 ▲첨단 액침냉각 기술 및 냉매 공급 등 데이터 센터 전용 솔루션을 적용할 계획이다.

SK가 제공하는 DCMS는 데이터센터 곳곳의 전력 흐름과 이상 신호를 상시 모니터링해 예비 발전기와 보조전원이 적기에 가동되도록 만드는 최첨단 시스템이다.

SK이노베이션 자회사 SK엔무브가 국내 최초로 상용화한 액침냉각 기술은 서버를 액침냉각 플루이드에 직접 담가 냉각하는 방식으로 AI·빅데이터 등 고발열 장비가 많은 첨단 데이터센터에 최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정전 등 위기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 안정성과 액침냉각 등 운영비 절감 기술력을 입증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글로벌 초대형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에너지 솔루션 개발 및 검증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고객 맞춤형 통합 에너지 솔루션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SK이노베이션 김무한 에너지솔루션 사업단장은 “이번 BDC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AI 데이터센터 에너지 솔루션의 기술력 및 경제성을 평가받아 글로벌 시장에서 상품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필요에 따라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기업들과의 공동 연구개발(R&D) 등도 벌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안 즉시 보완하라”

“심사 개시하기에 다소 미흡”
사용처·통합 비율 적정성 부족
아시아나항공 소비자 신뢰 보호
대한항공 “지속 협의해 나갈 것”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한항공이 제출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안을 즉시 보완하라고 요구하면서 통합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위는 12일 “오늘 제출된 통합방안은 공정위가 심사를 개시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대한항공 측에 즉시 수정·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반려 배경으로 마일리지 사용처와 통합 비율의 적정성을 꼽았다.



대한항공 여객기.

/대한항공

공정위는 “마일리지 사용처가 기존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던 것과 비교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통합안 기준을 두고 “국민적 관심 사항인 만큼 국민의 기대와 눈

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의 권익이 균형 있게 보호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현시점에서 대한항공 측이 제출한 통합방안을 국민 여러분께 공개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며 “지속적인 수정, 보완을 거친 후 적절한 시점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 역시 입장문을 통해 “이날 공정위에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제출했으며, 공정위 요청에 따라 지속 협의할 예정”이라며 “경청하는 자세로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현시점에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의 첫발을 떼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다”며 “항공소

비자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통합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청하는 자세로 향후 과정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2일 두 회사의 기업결합 이후 6개월 내에 마일리지 통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마일리지 통합 및 변경 금지’ 조건을 내건 바 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2020년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결정한 뒤, 양사 마일리지 제도의 통합을 준비해왔다. 통합이 이뤄질 경우 약 3조5700억원 규모의 마일리지 부채가 단일 제도로 묶이게 된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삼성전자, 가정용 시스템에어컨으로 동남아 공략

1웨이 카세트형 시스템에어컨
태국·필리핀·베트남 등에 출시
지난해 판매량 전년비 20% 늘어

삼성전자가 가정용 시스템에어컨 신제품을 앞세워 동남아 공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1웨이(단방향) 카세트형 시스템에어컨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주요 동남아 국가에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단방향 카세트형 무풍에어컨은 높이 135mm의 얇고 콤팩트한 디자인으로 설치가 간편하고, 공간 효율성도 높다. 제품에는 내장형 와이파이 기능이 기본 탑재돼 별도 장치 없이도 ‘스마트싱스’ 애플리케이션(앱)과 인공지능(AI) 음성 비서 ‘빅스비’를 통해 원격 제어가 가능하다.

특히 ‘AI 절약 모드’를 활용하면 전력 소비를 최대 20%까지 줄일 수 있다. 또한 기존 냉매 ‘R410A’보다 지구온난화지수(GWP)가 약 32% 낮은 친환경



은 태국 방콕에 위치한 삼성전자 매장에 단방향 카세트형 시스템에어컨이 전시된 모습.



삼성전자의 가정용 단방향 카세트형 시스템에어컨 라이프스타일 이미지. /삼성전자

냉매 ‘R32’를 적용해 환경 대응도 강화했다.

삼성전자는 동남아 시장에서 기업·

소비자간거래(B2C)용뿐 아니라 프리미엄 주거 단지, 호텔, 상업시설 등을 중심으로 기업간거래(B2B)용 공조 솔루션 공급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동남아 시스템에어컨 전체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20% 이상 증가했으며, 단방향 모델은 35% 이상 판매가 늘었다.

최근에는 필리핀 마닐라의 고급 주거·상업 단지 ‘럭셔리 레지던셜 타워’에 단방향 모델 약 1000여대와 고효율 시스템에어컨 400여대를 공급했다. 또 인도네시아 발리의 ‘발리 비치 호텔’에는 단방향, 4방향(4웨이), 원형 전방향(360) 모델 등 총 700여대의 제품을 설치했다.

최항석 삼성전자 생활가전(DA)사업부 상무는 “스마트한 연결 경험과 콤팩트한 디자인,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동남아 시스템에어컨 시장을 적극 공략해 나갈 계획”이라며 “동남아에 이어 글로벌 전 지역 공조 사업을 한층 더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민 기자 hyem@

현대차, ‘아이오닉 6 N’ 티저 이미지 공개

대형 윈 스포일러·넓어진 펜더
공기역학적 효율성 등 강조
“고성능 전기세단 재정의할 것”

현대자동차가 고성능 전기차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아이오닉 6 N(아이오닉 식스 엔)’의 티저 이미지를 12일 공개했다. 아이오닉 6 N은 대형 윈 스포일러와 함께 넓어진 펜더와 차체가 돋보인다.

이는 현대 N의 고성능 노하우를 담아 공기역학적 효율성과 역동적 운동 성능이 강조된 요소들로 고성능 세단에 걸맞은 낮고 넓은 스탠스를 강조한다.

현대 N의 3대 성능 철학인 코너링 악동(Corner Rascal), 레이스트랙 주행 능력(Racetrack Capability), 일상의 스포츠카(Everyday Sports Car) 기반으로 개발된 아이오닉 6 N은 경쾌한 코너링 성능과 뛰어난 한계주행 내구성을 비롯해 일상을 넘나드는 고성능 주행 감성을 전달할 예정이다.



현대차 ‘아이오닉 6 N’ 티저 이미지.

현대차 N매니지먼트실 박준우 상무는 “고성능 고객들의 취향을 한껏 반영한 아이오닉 6 N은 고객에게 차원이 다른 운전의 즐거움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현대 N의 기술력을 총망라해 완전히 새로워진 아이오닉 6 N은 고성능 전기 세단으로서 운전의 즐거움을 다시 한번 재정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오닉 6 N은 오는 7월 영국 굿우드 페스티벌 행사 현장에서 최초로 공개하며 글로벌 고성능차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